



모든 보건의료노동자에게 정당한 보상! 9.2 노정 합의 이행·보건의료인력 공공의료확충! 산별교섭 정상화·제도화!

# 투쟁속보

파업6일차

2023년 7월 18일 화요일 <http://korea.nodong.org>

발행/고대의료원지부

발행인/송은옥

## 이대는 이대로 타결했는데, 고대는 고대로 갈것인가!

**“임금 인상 2.5%, 인력 충원 없음”  
의료원은 노동조합의 시간땀기 중단하라**

17일 오후4시, 의료원과 실무교섭이 진행되었다. 구체적인 논의가 오고가기에는 실무교섭에서 사측은 아무런 안을 들고오지 않았다. 이에 노동조합은 의료원의 불성실한 교섭 태도에 대해 지적하며 실질적인 안을 가져오지 않는 한 실무교섭은 진행될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내세웠다.

**시설은 미래병원? 노동조건은 제자리!**

1조클럽, BIG6를 넘어 이제는 세상에 없는 ‘미래병원’을 만들겠다는 고대의료원. 하지만 고대의료원의 직원들은 건물, 시설, 장비에 밀리고 밀려 여전히 열악한 노동조건을 갖고 있다. 또한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

의료원은 비정규직만 양산하고 있어 그 규모가 어느덧 2000여명에 달하고 있다.

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투쟁은 2021년의 투쟁과 별반 다르지 않다. 첫째, 전 직원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병원의 수익은 직원들도 합당하게 받을 수 있어야 하고, 이는 임금인상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. 둘째, 각 부서에 적절한 인력 기준을 마련하여 이에 따른 인력배치를 통해 환자 안전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. 셋째, 무더기로 양산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해야 한다.

의료원은 언제까지 직원을 우롱할 것인가.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. 더 이상 참을 수 없다. 한양대, 경희대, 이대 서울사립대 주요 병원들이 교섭을 마무리했다. 이제는 고대만 고대로 남았다. 의료원은 합리적인 안을 가지고 교섭에 임하길 바란다. 그렇지 않으면 보건의료노조 8만5천 조합원의 집중투쟁을 맛보게 될 것이다.

## 조합원 단결로 보여주시다!

7월 19일 수요일 오전11시, 안암병원 로비에서 고대의료원지부 파업대회를 진행합니다. 병상 가동률이 40%대까지 떨어졌지만 의료원은 별다른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. 이에 재택 파업을 하고 있는 우리 조합원들이 다 같이 나와 우리의 힘을 보여줄 때입니다. 지금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가 보여줄 때를 놓칠 수 있습니다. 필수유지업무 조합원들을 제외한 모든 조합원들은 모여서 고대의료원에게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킵시다!